

家政學에 있어서의 兒童學의 位置

(Childdevelopment in Home Economics)

가정경영부

家政學의 궁극의 目的은 家庭生活의 向上 發展을 圖謀하는 方法을 研究 하는것이 目標라고 할수있다. 그렇다면 家庭生活에 있어서 첫째로 生活主體(사람)로서의 生活하는 者의 問題가 있으며 當然히 生活目標가 研究되어져야 하고 둘째로 그 目標達成의 實現의 方法으로서의 生活機能이나 生活技術이 問題가된다. 또 셋째로 生活資材 生活物資인 生活客體가 研究對象이 된다고 본다.

이같이 生活主體 生活技術 生活客體가 研究對象이 되는 까닭에 其中 生活物資에 관한 研究만이 中心이 되면 그것은 自然科學에 屬하는것이 되고 機能的인 技術面만을 重視해서 取扱하면 能率學이 되는 것이다.

以上과 같이 家政學이란 廣範한 研究對象을 갖고 이것이 家庭生活의 要素를 綜合的으로 家政으로서 實現하기 위한 原理 手段을 探究하는 綜合科學이라고 볼수있다. 따라서 家政學은 基礎的으로 社會科學的 探究와 自然科學的 探究 두 다른 條列의 科學的 探究에 依해서 家政學의 目的이 達成되어 지지 않으면 안된다는것이 家政學이 다른 學問과 다른 特質이라고 본다.

이같은 家政學 分野에서 兒童學이 過去 現在 未來에 걸쳐 어떻게 다루어져 왔으며 어떻게 다루어질 것인가에 對해 간단히 言及해 보려한다.

1. 過去 家政學이 設立된 當初의 家政學의 目標은 賢母良妻를 養成하여 좋은 家風을 만드는 것이였으며, 그때의 家庭生活이나 方法은 복잡하였기 때문에 그것에 얽매어 問題解決에만 모든 注意나 努力을 傾注하였었다. 다시말해서 實踐的인 生活技術의 問題解決이 家政學 研究의 方向이였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家政學의 方向과 같이 兒童學도 學問으로 系體를 갖추고 急進的으로 發達하게 된 것은 19 世紀 末葉 科學的 研究方法을 使用하기 시작한 後 부터이며 그 以前의 段階에서는 育兒라 하여 어린이를 키우는 技術的인 方法論만이 強調되어 왔다. 더우기 乳兒 幼兒를 對象으로 하는 方法論으로 身體面만을 重視하여서 다루어져왔다. 즉 어린이란 어떤 存在이며 어떠한 發達의 原理 原則 밑에서 發育 發達하는가 하는 것에 對해서는 생각해 보지를 못했다. 對象은 모르고 단지 生理的 物理的 面만이 強調되는 技術 習得에 그치었다. 技術도 兒童學의 一部分을 이루나 兒童學이 곧 育兒 技術習得이 아님은 確實하다. 따라서 兒童學이

果然 이래야만 되는가 하는 反省을 해야만 하기에 이르렀다.

2. 20世紀 中半 急激한 科學文明의 發達로 인해 우리 生活에 많은 變化를 가져왔다. 즉 生活客體의 質, 內容이 달라져 自然히 生活技術에도 變化를 가져왔다. 또 언제나 生活主體는 生活客體를 自己生活에 잘 맞게 變容하고 加工하여 現在에는 家庭 energy 인 電氣 gas 其他機械類가 家庭에 들어와 使用方法의 熟練뿐 아니라 知的인 技術處理가 問題가 되게 되었다.

따라서 家政學 研究方法에도 自然科學的인 方法論이 導入되어 特히 自然科學 系列은 점점 研究가 활발해져 各分野別로 기존 隣接科學에 接近하여 깊이 과고 들게 되어 研究課題도 점점 部分的으로 되고 細分化 되기에 이르렀다.

아직 까지의 技術뿐 아닌 原理 原則의 모색으로 보다 發展的인 研究方向으로 研究의 深度가 깊어졌다.

그러나 社會科學 系列은 自然科學과 같이 一定한 法則이나 公式에 맞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重要性은 認定 하면서도 複雜하기 때문에 소홀히 한 事實이 있었다.

이와 같이하여 科學的인 研究가 自然科學系列에서 큰 成果를 올리는 하였으나 이 進歩의 그늘에는 人間 不在論이 臺頭하기 시작했다. 즉 生活主體와 연관을 짓지 못하였다.

本來 部分的인 研究나 基礎的 研究도 人間生活에 聯關 시켜야 함에도 不拘하고 너무나 細分化되고 極히 小部分으로 研究가 進行되어 복잡한 人間生活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끝나 버리게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러한 한便 兒童觀에도 많은 變遷을 가져와 어린이라는것은 사람으로서의 出發點이고 人間으로 탄생해서 成熟할때 까지의 一時期를 占하는 存在로서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兒童學이란 人間은 探究하는 學問이라고 보게 되었다.

一個體로서 人間이 成長, 發達을 하려면 身體的 精神的인 自然의 法則에 依해서 發達하는 것과 同時에 一個體에 作用하는 環境과의 相互作用에 依해서 變動하고 發達 育成하는 過程이다. 따라서 大端히 복잡하여 兒竟學이란 醫學, 營養學, 心理學, 社會學, 人生學을 포함하는 幅 넓은 學問으로 보게 되었다. 이와 같이 社會科學系列의 學問도 점점 보는 觀點도 研究方法도 多樣하게 여러 面에서 科學的으로 다루어지게 되었다.

3. 以上과 같이 各分野別로 깊은 研究가 結局은 人間生活과 聯關 지워지지 못하였음을 自認한 美國에서는 家政學의 方向에 變化를 가져 왔다.

實用主義的인 그나라 家政學者들은 目標遂行에 貢獻하고 果敢히 實踐한 後 면밀히 評價하여 過去의 傳統에 얽매이지 않고 계속 前進의 姿勢로 漸次 發展 시켜 나가는 것이 美國의 家政學의 方向이라고 볼수있다.

그 一端으로 家政學의 性格 內容도 時代의 變遷 要求에 따라 變形되고 아직 까지의

Home Economic 라고 하는 學部名을 버리고 새롭게 人間生態學, 家族資源料 等等으로 改名을 하기에 이르렀다. 以上과 같은 現狀은 앞으로의 美國의 家政學의 方向을 暗示하는 것이 라 본다. 한마디로 美國의 家政學은 人間生活에 관한 總合的 學問의 形態를 갖추어 가고 있다.

그러한 方便 日本에서는 各其 細分化된 研究를 再次 實踐科學으로서 獨自的인 家政學을 體系化하고 展開的이고 發展的이려는 움직임이 농후 한것 같다.

以上과 같은 움직임에 따라 兒竟學도 아직까지의 研究方法보다 더욱더 科學的인 研究方學으로 여러 角度(育充態度, 出生順位, 社會的背境, 兄弟數등)에서 어린이의 諸發達과 聯關지워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를 다루어 어린이의 身體發育은 勿論 精神發達 指導에 큰 貢獻을 하고 있다.

앞으로의 社會가 또 어떤 形態로 變形 되어 이 學問이 그것에 어떻게 맞추어 갈지는 알 수 없으나 적어도 細分된 各分野끼리의 研究를 그대로 그쳐 버릴것이 아니라 生活主體와 關聯시키고 人間社會에 再回收해서 檢討하고 서로間的 研究의 交流를 건밀히 가지면서 보다 더 깊은 研究가 繼續되어 나가야 되리라 생각한다.

(국민대학 우영희교수)